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53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편 1회 18~23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A] 어유와 계장님네 이 기음 매자꾸나  
 기음노래 내 부르리  
 천지 삼기실 제 사람이 같이 나니  
 너르나 너른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거니 귀천이 같을손가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행실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오  
 만들기는 장인이오 바꾸기는 장사로다  
 치치한 우리들은 할 일이 무어신고  
 속미와 포루는 고급의 한 법이니  
 복전 역색이 이 아니 근본인가  
 종년 작고 수곤 줄도 알진마는  
 양사부육이 이 아니면 어이하리  
 창경이 처음 울고 뽕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습습하고 세우는 몽몽한데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 때 잃을세라  
 송아지 먹거나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네 거름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소  
 앞집 보습 뒷집 쟁기 선후를 다툰손가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일군 후에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빈 데 있을세라  
 이삭이 비록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랴  
 엇그제 갓 맨 기음 어느 사이 벌써 기네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 수고 꺼릴손가

[B]

(중략)  
 추풍이 건듯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네덕으로 한 빛이라  
 온 여름 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부르네  
 이른 논의 참새 무리 늦은 논의 기러기 때  
 남의 속 모르기는 알미울손 짐승이라  
 내일은 들 거두세 새벽밥 일찍 하소  
 낮 갈아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베거나 묶거나 이거나 지거나  
 젊으신네 도리깨질 늙으신네 그네질  
 섬 우기네 새끼 꼬네 어즈러이 구는지고  
 자네 밭에 몇 묶음인가 내 논 소출 이뿐일세  
 공사채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

[C]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종년토록 수고타가 하루 겨를 못 얻을까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술을 빚소  
 울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 떨어지네  
 게 찌니 닭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룡복기 봉탕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김풍헌 이약정을 좌상으로 모신 후에  
 현 패랭이 베 무지렁이 차례로 앉은 후에  
 질동이 내어놓고 쪽박 잔 가득 부어  
 잡거나 밀거나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조금 피리 곡조도 좋을시고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이 절로 난다

[D]

어디에서 면주인은 불속객이 오단 말고  
 잔기침 굶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어서 나소 자주 나소 반객인들 내물손가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 구실 말라 할까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알리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 하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죽 무리 더욱 설워  
 저 너머 십여 호가 어젯밤에 닷단 말가  
 뒤라셔 우리 정상 그려다가 구중궁궐의 님 계신 데 드리리  
 - 작자 미상, 「기음노래」

- \*치치한: 하찮은.
- \*속미: 좁쌀.
- \*포루: 베와 실.
- \*양사부육: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핌.\*세벌: 세 번에 걸쳐 김을 매는 것.
- \*위상하니: 서리가 내리니.
- \*면주인: 주나 부·군·현과 면 사이를 오가며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 \*불속객: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 \*환자: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
- \*정상: 딱하고 가엾은 형편.

(나)

그 뒤로 나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내 『강희자전』이 팔리거나 읽었나 싶어서 그 책사예를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칠십 원을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부리나케 드나들어 보았으나, 요행으로 내 『강희자전』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꽃아 둔 그 자리에 그대로 꽃혀 있었다.  
 꼭 한 달 만에야 겨우 돈 칠십 원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  
 “여보, 이 책 나 삽니다.” 하고 『강희자전』을 뺏아서 옆구리에 끼면서 돈 칠십 원을 주인 앞에 던졌다.  
 주인은 안색이 별안간 창백해지면서,  
 “그건 파는 책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다.  
 “안 파는 책이 어디 있던 말이요, 당신이 오십 원에 사서 이십 원을 붙여서 칠십 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소?”  
 “아닙니다, 그러지 맙쇼, 두고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내 옆구리에서 곧 『강희자전』을 도로 빼앗을 것같이 굴었으나, 나는 잠자코 문을 열고 길로 나서고 말았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친구가 내가 갔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갔더라면 필시 한 오백 원쯤은 받았으려다.’  
 아무튼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어, 오십 원이란 놈이 열흘에 백오십 원씩 마구 새끼를 치는데, 이놈이 고작 한 달 만에 이십 배 새끼를 치는 셈이다.  
 문명(文明)한 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 생식이 과다할 때는 산아 제한을 국책으로 강행한다는데……. 위정자, 모름지기 일고(一考)를 축(促)할 만한 이야기거러다.  
 지난여름에 시골서 교장 노릇 하는 G 군이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자네 웬일인가?”  
 “나? ㉡감투 하나 쓰러 왔네.”  
 “정말인가?”  
 “그럼 거짓말로 아냐?”  
 정계(政界)에 매일같이 감투 씌이 벌어지고 장안 안 여관마다 감투 시러 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꿇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벽적거리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 보니 그깟 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레,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을라구, 에러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불고(前後不顧)하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보아 한즉, “그 감투란 것 좀체로 쓰기 어렵데, 하불실(下不失) 십만 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 값이나 될는지 모르겠네.”  
 허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면(廣面)한 친구이니까 혹 그럴듯한 굶이 없겠느냐.”는 것

이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G 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 가는 것이지만, 우선 이쉬운 대로 나는 G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서 이렇게 권고해 돌려보냈다.

“실례일지 모르나 자네는 세상을 좀 더 알아야 하네.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감투란 원래 값이 비싼 것이 아닐세. 아니라기보다 한 푼어치 값도 없어요, 또 값이 있을 수도 없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밀친 들어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밀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가령 책 장사가 『강희자전』 한 권을 오십 원이고 백원이고 주고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 장사가 자기 신주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 둘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만 받고 팔겠나? 오백 원이고 육백 원이고 흠뻑 이(利)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 @이렇게하면 자네는 책 장사요, 감투는 『강희자전』이란 말일세.”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G는 껄껄 웃기만 했고 그가 돌아가면서 중시 해결을 못 지운 것 같은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 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못 견디었다.

-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 \*일고를 축할 만한: 값이 한번 생각해 봄 직한.
- \*전후불고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 \*하불실: 아무리 적어도.
- \*끓: 방도나 길.

1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제시함으로써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학문을 배우려 애쓰고 있다.
- ②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 ③ 가족을 돌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 ④ 잔치 때 좌상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⑤ 고된 노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며 새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0. <보기>의 '관북 관찰사'가 (가)를 창작했다고 가정할 때, (가)의 [A]~[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세기 어느 문집에는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관북 관찰사로 재임하던 분이 우리말로 '김매기 노래' 한 편을 지으셨다. 쟁기질로부터 시작하여 벼를 거둘 때까지 '밭이랑에서 겪는 수고'와 가을걷이 후에 '때에 맞춰 잔치하는 즐거움'을 수집하여 진술하였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까지 언급하였다. 그분은 관직을 마칠 때 임금께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필 것을 청원하였고, 그 후에도 거듭하여 그 뜻을 아뢰었다.

- ① [A]에는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대부인 작가의 관점이 투영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B]에서는 농민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겪는 노고와 농민이 수확 후 값아야 할 빛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에서는 농민들이 가을걷이 후에 때에 맞춰 잔치를 열어 다양한 음식을 차린 후 술을 마시고 흥겨워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군.
- ④ [D]에는 백성들이 겪는 힘겨운 고통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나는데, 이는 관북 관찰사가 관직을 마치고 임금에게 아뢴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A]와 [C]는 동일한 대상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방식인데, 대화 내용을 통해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군.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미래에 대비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단이다.
- ② ㉠과 ㉡은 모두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이다.
- ③ ㉠과 ㉡은 모두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은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고, ㉡은 부정하게 얻으려고 하는 결과이다.
- ⑤ ㉠은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허무감을 담은 사물이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수필은 일반적으로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인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글입니다. (나)에는 두 가지의 인상적인 체험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체험은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작중 상황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나)의 '첫 번째 체험'과 '두 번째 체험'을 비교하면서 작품의 특징을 이해해 봅시다.

- ① '첫 번째 체험'은 글쓴이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두 번째 체험'은 G의 출세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글쓴이는 가정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G가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고 간주하고 있다.
- ③ '첫 번째 체험'에서 글쓴이가 책을 자주 드나드는 것과 '두 번째 체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벼슬을 사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G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인과 G의 표면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첫 번째 체험'에서는 자신이 팔았던 책을 되찾은 후에, '두 번째 체험'에서는 G를 질책한 후에 국가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3. (나)의 글쓴이가 ㉠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벼슬을 하더라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② 벼슬에 오르면 그 지위를 악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려고 할 것이다.
- ③ 좋은 책을 구입해 그것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면 언젠가 원하는 벼슬을 할 것이다.
- ④ 책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듯이 벼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다.
- ⑤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뜻이 없다면 차라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을 것이다.